

“경과 의를 아울러 가지면 아무리 써도 다하지 않는다.” ●●●

남명 선생은 어떤 분인가

남명 선생의 생애와 학문정신



社団法人 南冥學研究院



人之愛正士
如虎皮相似
生則欲殺之
死後方稱美

崔錫纘謹書



남명 선생은 어떤 분인가

남명 선생의 생애와 학문정신



社団法人 南冥學研究院



• 남명 선생 상



• 덕천서원



• 송덕사



• 산천재



• 세심정



• 산해정



• 뇌룡정



• 시비



• 시비



• 문집



• 남명집 목판본



• 남명묘소 참배



• 송덕사 참배



• 의병출정식



• 학생풍물놀이

차례

1. 처사(處士)로 곧게 살아간 생애	12
2. 마음을 닦고 정의를 실천하는 학문-경의(敬義)	19
3. 우국애민(憂國愛民)의 선비정신	23
4. 지식인 사회와 나라에 끼친 영향 및 공적	27
1) 처사상(處士像)의 확립	27
2) 선비존중의 가치관 조성	29
3) 영재교육과 국난 극복	32
5. 남명의 상소문(上疏文)	38
1) 단성소(丹城疏)	38
2) 선조(宣祖)에게 올린 마지막 건의	40
6. 국왕이 보낸 제문 및 선비 우대정책	46
1) 사제문(賜祭文)	46
2) 선비 우대정책	48
7. 성운(成運)이 쓴 묘갈문(墓碣文)	51

1. 처사(處士)로 곤계 살아간 생애

남명(南冥) 조식(曹植)은 조선조(朝鮮朝) 연산군(燕山君) 7년(1501년) 6월 26일 경남 함천군(陝川郡) 삼가면(三嘉面) 토동(兎洞)에서, 강직한 성품의 아버지 언형(彦亨, 承文院 判校)과 인자한 성품의 어머니 인천 이씨(李氏, 忠順衛 李菊의 딸, 左議政 崔潤德의 외손녀) 사이의 3남 5녀 중 2남으로 태어났다. 본가는 삼가면 판현(板峴)에 있었고, 토동은 선생의 외가이다. 이웃에 사는 예언가에 의하면, 외가인 이씨의 가택은 명당이어서 닭띠 해(酉年)에 태어나는 아기는 자라서 현인이 된다고 하였다. 해산 뒷바라지를 하던 외조부는 외손자를 보아서 기뻐하면서도 한편 자기네 운(運)이 사위인 조씨(曹氏) 집안으로 갔다고 아쉬워했다고 한다. 선생의 자(字)는 건중(健仲)이요 남명은 그의 호(號)이다.

다섯 살 때까지 외가에서 자라던 선생은 아버지가 장원급제하고 벼슬길에 오르자 서울로 이사해서 아버지에게 문자를 배웠다. 선생은 아홉 살 때 큰 병을 앓았는데 어머니가 이를 걱정하자, “하늘이 나를 낳으실 때는 반드시 할 일이 있어서 일 것이니 요절할 이유가

없습니다”하고 도리어 어머니를 위로했다 한다.

소년기에 들어서 는 이윤경(李潤慶), 이준경(李浚慶) 형제 및 이항(李恒) 등과 죽마고우로 지내면서 학업을 닦았다.



생가터

아버지가 함경남도 단천 군수(端川郡守)로 외지에 부임하자 잠시 거기에서 지내면서 경서(經書), 역사(歷史), 제자(諸子), 시문과 천문, 지리, 의방(醫方), 수학(數學), 궁마(弓馬), 진법(陣法) 등 남자가 갖추어야 할 모든 지식과 재능을 익혔고, 특히 자기의 정신력과 담력을 기르느라 두 손에 물그릇을 받쳐들고 밤을 새기도 하였다. 이때 선생은 벌써 학문을 닦아 한 시대를 지도할 뜻을 세우고 힘써 노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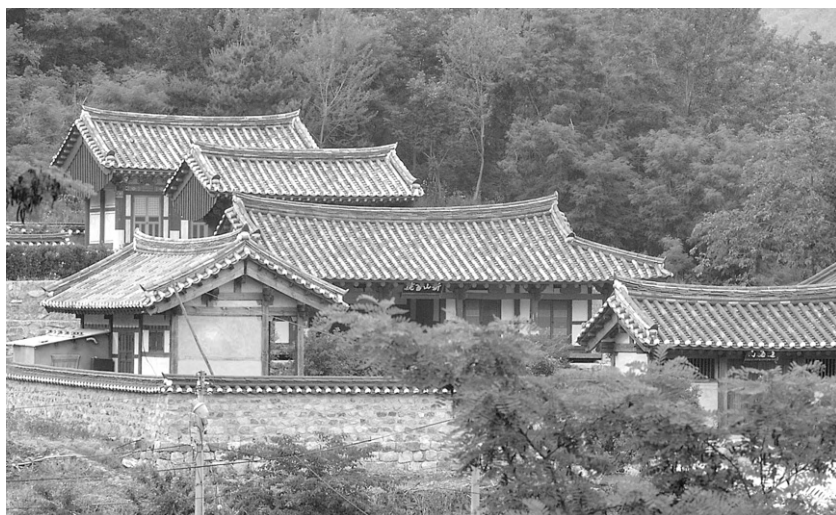
그러나 그러한 의기는 18세 때 서울로 돌아와 성수침(成守琛)과 성운(成運) 종형제를 만남으로써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의 의기가 깨끗하고 정신이 고상하며 문장이 수려했기 때문에 선생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 지난날의 세속적인 자세를 버리고, 보다 높고 깊은 인생의 경지를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유학서(儒學書) 이외에 천문지리 노장학(老莊學), 병법 등 제자백가(諸子百家)의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방면을 두루 섭렵한 선생의 학문은 성리학만 중시하던 당시에는 불순하다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선생의 학문이 당시의 학자들과는 비교될 수 없이 넓고 깊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20세에 생원·진사 양과의 초시(初試)에 1, 2등으로 급제했다. 선생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과 유종원(柳宗元)의 문장을 좋아했고 고문(古文)에 능통하여 고문으로 시험 답지를 써서 시험관들을 놀라게 했고, 그 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때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 젊고 참신한 개혁의 기수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가 죽고 숙부 언경(彦卿)마저 멸문의 참화를 입자 선생은 이를 슬퍼하고 시국을 한탄하며 결국 벼슬을 단념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상을 개탄한 채 학문적, 정신적인 방황을 하고 있던 선

생은 25세 때 산사에 가서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읽다가 송(宋)나라 말기 학자였던 허형(許衡)의 말에서 감명을 받았다. 즉, “이윤(伊尹)의 뜻을 뜻으로 하고 안연(顏淵)의 학문을 학문으로 하여, 벼슬에 나가면 유익한 일을 하고, 초야에 묻히면 지조를 지킨다. 대장부라면 마땅히 이 같아야 할 것이니, 벼슬에 나아가서도 하는 일이 없고, 속세에 묻혀서 지킨 것도 없다면 뜻한 것, 배운 것을 무엇에 쓸꼬?” 라는 그의 결연한 각오를 읽다가 홀연히 깨달은 바 있어 다시 육경(六經)과 사서(四書) 및 주돈이(周敦頤), 장재(張載),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 그리고 주희(朱熹) 등의 사상과 학문에 전념했다.

26세 때 선생은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고향인 삼가에 장사지내고 삼 년 동안 여묘살이를 했고, 가난과 싸우면서 서민들의 고초가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남명의 사상 속에 항상 민생을 잊지 못한 것은 이 때 어려움을 실지로 겪어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깊은 사색에 빠지는 습관도 여묘살이에서 얻은 귀중한 소득이었다.



산해정

30세 때 처가가 있는 김해에 이사하여 산해정(山海亭)을 짓고 안정된 공부를 하면서는 ‘태산(泰山)에 올라 사해(四海)를 바라보는’ 기상을 길렀고 진흙탕 같은 혼란함 속에서도 연꽃처럼 깨끗한 학문과 인격을 닦았다. 여기에 성운(成運), 이원(李源), 이희안(李希顔), 신계성(申季誠) 등 유명한 유학자(名儒)들이 모여들면서 기묘사화(己卯土禍) 이후 무너졌던 사기(士氣)를 응집시켜 재기를 도모하는 중심인물이 되었다. 또한 남명은 학문과 인격을 도야하는 외에도 학생들을 모아 가르침으로써 진정한 학자의 기반을 다지기도 하였다.

48세 때 18년간 학문의 기반을 닦던 김해를 떠나 다시 고향인 토동에 돌아와 계부당(鷄伏堂)과 뇌룡사(雷龍舍)를 짓고 한편으로는 후진을 가르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소를 올려 직접 국왕에게 잘못된 국정을 호되게 비판하였다.

계부당은 글자 그대로 닭이 알을 품는다는 뜻이니 정신수양과 인재양성에 힘쓰는 도장이었고, 뇌룡사(雷龍舍)는 ‘연못처럼 잠겨있



뇌룡정

다가 때로는 우레처럼 소리친다’는 뜻이다. 이는 초야에 사는 처사로서 냉정하게 세상을 굽어보다가 가차 없이 국정을 비판하고 국책을 건의함을 말한다.

김해에서의 18년 생활은 급기야 선비사회의 기풍을 다시 진작하는 힘이 되어 선비들은 선생을 사림의 영수로 추앙하기 시작했고, 이를 안 조정은 그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선생을 여러 차례 벼슬길로 나오도록 초빙했으나 모두 사양했다.

이 때 선생의 학문과 인격, 그리고 사상과 정신은 널리 알려져서 오건(吳健), 정인홍(鄭仁弘), 노진(盧禎)과 같은 기성학자들이 문하에 들어와 남명을 지식인 사회의 스승으로 추대하였다. 이 무렵 국왕에게 올린 ‘을묘 년의 사직상소문’, 이른바 단성소(丹城疏)가 조정을 놀라게 하고 지식인 사회를 용동(聳動)케 하자 선생의 명망은 절정에 이르렀다. “하늘 높이 우뚝하다(壁立千仞)”느니, “태산 같이 우람하다(泰山喬岳)”느니, “서릿발처럼 차갑고 피약벌처럼 뜨겁다(秋霜烈日)”느니, “한 시대를 굽어 본다(俯視一世)”느니 하는 말로 선생의 기상을 추앙하였다. 선생의 학덕과 명망이 더욱 높아지자 조정에서는 더욱 예우를 하고 벼슬을 내렸으나 모두 사양하여 선비의 고고(孤高)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61세가 되자 선생은 일생의 마지막 도장으로 지리산 천왕봉을 바라보는 덕산의 사륜동(絲綸洞)에 산천재(山天齋)를 짓고, 60년 동안 갈고 닦고 쌓아올린 자신의 학문·도덕·인격·정신 그리고 사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많은 영재들을 모아 가르쳤다. ‘산천(山天)’이란 《주역(周易)》 대축괘(大畜卦)의 상징이다. ‘대축’이란 ‘선현의 말씀과 행실을 많이 배워 그 은택을 비축한다’는 뜻이니, 이는 선생 자신의 처지를 잘 비유한 것이라 하겠다.

선생의 일생은 이 산천재에서의 만년(61~72세)을 잘 장식함으

로써 선비로서는 최고의 전형이 되었다. 그것은 여기서 길러진 문인들이 조선 선조(宣祖) 시대에 정치·학술계를 움직이는 주역이 되었고, 임진왜란을 당하여서는 의병을 일으켜 왜적에 대항한 절의지사(節義之士)들이 되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산천재

66세 때도 조정에서 초빙하자 포의(布衣)로 왕과 독대하여 치국의 방책과 학문의 요체를 설명했다. 곧 이어 등극한 선조(宣祖)도 여러 번 초빙했으나 나가지 않고, 대신 정책을 진언했다. 진언이 반영되지 않자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72세(1572년) 되던 해, 2월 8일 천수를 다하고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륜동에서 조용히 운명하였다. 운명 전 문병 온 노진(盧禎), 김우옹(金宇頤), 정구(鄭述), 하항(河沆)에게 사후의 칭호를 처사로 할 것과 자기의 학문은 ‘경(敬)’과 ‘의(義)’ 두 글자에 집약되는데 이는 하늘의 일월처럼 변함없는 진리이니 힘써 따를 것을 당부

하였다. 선생은 일찍이 말하기를, “경과 의를 아울러 가지면 아무리 써도 다하지 않는다. 내 집에 이 두 글자가 있는 것은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으니 만고에 뺄치지 않을 것이다. 성현의 천·만 마디 이야기가 그 귀결점은 모두 이 두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제물과 의전관을 보내어 장례에 참배했고 지식인 사회는 모두 곡하면서 만장(輓章)과 제문을 올렸다. 선생은 ‘선비로서의 외길을 고수했고 천자(天子)의 힘으로도 마음대로 자기의 신하를 삼을 수 없는 선비도 있다’는 옛 교훈을 몸소 실천하여 선비의 고매한 기상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후세의 사가(史家)들이 선생이 있어 학자들은 비로소 긍지를 갖게 되었고, 벼슬아치는 탐욕스러움과 태만함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았다고 하였다. 이것이 어찌 제왕의 공로보다 못할 것인가? 그러기에 맹자(孟子)도 선비의 뜻과 절개는 결코 제왕의 다스림에 못하지 않다고 하였으니, 그러한 선비의 자존과 직분을 확립해 주고 간 분이 바로 선생이었던 것이다.

선생 사후 나라에서는 영의정에 추증하였다. 이것은 선생의 학문과 명망에 대한 예우일 것이나, 선생이 바라던 바는 아닐 것이다. 일생을 고결한 선비의 외길을 걸어간 선생은 사후(死後)의 칭호를 ‘처사’라고 부르기를 임종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 마음을 닦고 정의를 실천하는 학문-경의(敬義)

선생의 학문은 그 형성과정에 있어서 네 차례의 큰 전환이 있었다. 이것은 선생의 학문을 더욱 폭 넓고 깊게 하였다. 선생은 소년기에는 일반 사대부의 자제들처럼 《소학(小學)》을 익히고 육경(六經)과 사서(四書)를 읽었으며 아울러 《춘추좌씨전》과 유종원의 작품을 좋아하고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학(醫學), 산수(算數), 병진(兵陣) 등 여러 방면의 지식과 기예를 익히고 닦아 한때는 자부심이 대단하여 일반을 내려보기까지 했다.

그리고 선생의 학문은 청년기에 이미 정신력과 담력을 기르고, 현실에서의 실천을 표방했기 때문에 관념적이기 보다 행동적이고 실용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의기를 앞세우는 학문이 자칫 빠지기 쉬운 폐단인 현실과의 타협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높은 뜻과 기상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은 노자(老子)와 장자(莊子)를 연구하고 불교에도 조예가 깊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선생의 청년기 학문경향을 평하여 정주학(程朱學)만을 학문으로 인정하던 당시의 학자들은 남명을 불순하다고까지 말하였는데, 선생 자신도 청년기의 학문이 폭 넓은 면이 없지 않았다고 시인한 바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학문 형성과정의 일면에 불과할 뿐, 25세 때 산사에서 《성리대전(性理大



성경독

全)》을 읽고 성현의 학문과 뜻을 일생의 지표로 세우고 정진하여 소기의 목표에 도달한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임도 해명한 바 있다.

선생의 학문은 앞서 말한 네 차례의 전환이 말해 주듯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과거공부에 얽매어 전전공공하던 학자나, 정주학(程朱學)을 신봉하여 문장이나 외운 학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것이었다. 25세 이후 성리학과 원시유학(原始儒學), 이를테면 안연(顔淵)의 고풍과 맹자(孟子)의 의리지변(義利之辨)과 대장부론, 그리고 호연지기 등을 체득하여 정교하고 심오한 경지를 구축하였다.

이것은 관념적 이론만을 파고들던 학자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건전하고 독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남명학의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문목공(文穆公) 정구(鄭述)의 제문이다.

“천지의 순수하고 강건한 덕을 받고, 산과 강의 맑고 맑은 정기를 한 몸에 모아, 재주와 지식은 일세를 놀렸고, 기개는 고금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 지혜는 충분히 천하의 어떠한 변화에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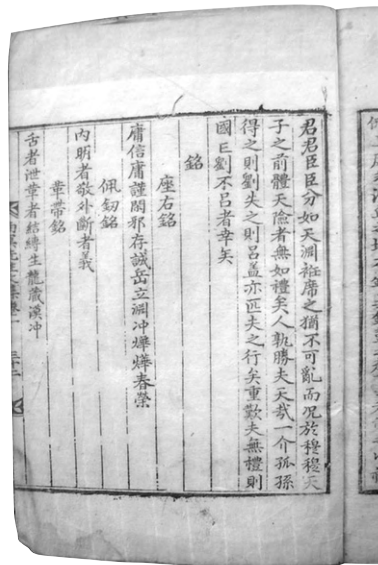
경의당

응할 만했고, 용맹은 삼군을 지휘하기에 충분했다. 태산처럼 웅장한 기상으로 천길 벼랑에서 옷깃을 훑날리고, 봉황이 비상하는 듯 고상한 뜻은 구만리 넓은

하늘에 막힐 데가 없었다. 어려서는 문장을 본업삼아 온갖 서적을 널리 통달하더니 마침내 우리들의 할 일이 이에 있지 않다 깨닫고 ‘자기수양을 위한 학문’인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전념했다. 은거하면서 뜻을 세우고 문 밖 출입을 삼가면서 학문을 쌓았으니, 선생님은 성실과 신의를 근본으로 하고, ‘정신수양(敬)’과 ‘정의실천(義)’을 위주로 수련하여 세월이 오래 됨에 함양이 깊고 근본이 굳게 서서 일상의 어느 사리에도 어긋남이 없었다. 선생님의 수도는 천신만고 끝에 얻어진 것이어서 그 지조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굳건했을 뿐 아니라 일찍이 사회도덕과 민생구제, 그리고 국방안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세상에 선생을 아는 이가 드물어, 자칭 잘 안다는 사람도 선생을 고작 산 속에 은둔한 선비 부류라 칭하고, 모르는 자는 감히 험담까지 했다. 슬프다. 선생의 탁월한 안목과 대범한 기개와 높은 학문, 꾸밈없는 기량을 그들이 어찌 만의 하나나 헤아릴 수 있으랴”

남명의 학문과 사상은 선생이 평생 근본으로 삼았던 ‘경의(敬義)’ 두 글자로 집약된다.

선생은 자기가 휴대했던 패검(劍)에 ‘내명자(內明者)는 경(敬)이요, 외단자(外斷者)는 의(義)’라고 새겼듯이 먼저 자신을 수양(敬)하여 근본을 세운 다음 밖으로는 정의(義)를 과단성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스스로 믿고 또 행하며, 제자들



패검명

에게도 가르쳤다. 이를 보면 남명학은 행동을 중시하는 것은 사실이나, 행동 이전의 근본을 세우는 것을 더욱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선생이 지식을 습취함과 아울러 피나는 노력으로 담력과 정신력을 기른 이유도 광명정대한 학문과 의지를 갖춘 뒤에 반드시 확고하면서도 적절한 행동이 뒤따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義)를 경(敬)과 병렬해서 강조하게 된 것이다.

선생은 ‘경’과 ‘의’를 마치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며, 성현의 천만 가지 말씀도 그 귀결점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남명은 조선조 실학의 비조(鼻祖)로서 선구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3. 우국애민(憂國愛民)의 선비정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생은 폭 넓은 학문적 토대와 고매한 정신 경지, 그리고 도통론(道統論)에 크게 구속 받지 않는 개방정신을 가졌다. 따라서 남명사상은 당시 일반 성리학자들과는 사뭇 다른 면이 있었다. 특히 당시 사마광(司馬光)의 말처럼 ‘군신간의 위상은 영구히 바뀌지 않는다(君臣之分永久不易)’는 틀에 박힌 정치체제와 관료주의로 인하여 관준민비의 사조가 팽배했음에도 이를 비판 견제해야 할 세력인 지식인 사회가 무너진 기묘(己卯), 을사(乙巳)사화 기간에도 거리낌 없이 선생은 이를 광정(匡正)하려는 사회개량주의(淑世主義)와 정치개혁사상을 가졌던 것이다.

우선 선생은 상하주종관계에 있던 군신관계를 횡적 평등관계와 쌍무관계(雙務關係)로 되잡고, 늘 관리의 권력에 짓밟히던 민중을 중요시하여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고 하는 민본사상을 제고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옹을 수도 있는 것처럼, 백성은 군왕을 추대하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물은 백성이요, 배는 임금이다. 물은 평탄할 때도 있고 격랑을 일으킬 때도 있다. 또 배는 물을 순행할 때도 있고, 역행할 때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배는 물 위에서의 배이지, 배의 물일 수 없다. 그러므로 배는 물의 이치를 알아야 하고, 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하듯이



남명선생 영정



민암부

백성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외민사상(畏民思想)의 「민암부(民巖賦)」를 지었다.

그리고 선생은 백성의 쪽에 서서 통치자를 올바르게 비판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언론을 일깨우는 것이 본연의 직

능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선비는 한 사회국가 속에서 국외자의 안목과 주체적 입장에서 정의와 합리에 기초한 가치기준으로 항상 현실을 비판하고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비가 나라의 은택과 백성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선생은 결코 숨어 살기를 좋아하는 은둔지사(隱遯之士)가 아니며, 또한 관직을 기피하는 불사(不仕)주의자도 아니다. 선생이 말하는 처사란 바로 운동경기에 있어서 법규에 따라 심판하는 심판장과 같은 것으로 세상의 돌아감을 지켜보고, 올바른 도리를 밝혀서 전하고, 그마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목숨을 내걸고 저항하는 도리를 밝히고, 도덕을 전파하고, 인간의 올바른 도리를 수련하는 사도(使徒)와 같은 것이다.

선비가 위와 같은 사명과 직능을 갖는 것이므로 선비의 나아감과 물러섬은 가변이 할 수가 없다. 이에 선생은 정의(正義)와 사리(私利), 진실(眞實)과 허상(虛像)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선생이 보기에 선비가 현실정치에 나아가서 경륜도 펴보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다가 망신하는 주요 원인이 권세에 유혹되고 헛된 이름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비가 권세를 탐내어 벼슬에 나아가면 그는

그것을 탈취하고 지키는 데 골몰하여 상하좌우의 눈치나 살피고 사(私)로써 공을 움직이게 마련이며, 또 허명에 도취되면 관직이나 차지하고 실제의 일은 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집권자는 선비의 비판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실제로 할 일도 권한도 없는 허직(虛職)에 명망 있는 선비를 끌어들이는데, 허명을 좋아하는 선비는 모두 이 낚싯밥에 걸려들고 만다.

나라에서 여러 번 선생을 벼슬에 붙였는데도 끝까지 나아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 허명으로 선비를 유혹하고 농락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선생은 매번 사직상소(辭職疏)를 올릴 때마다 허명을 들어 왕명을 사양했던 것이며, 자기가 나아가는 벼슬길이 경륜을 펼 수 있는 위치와 그런 정국이 조성된다면 언제라도 왕 가까이에서 일을 하겠다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을 보면 선생은 결코 불사주의(不仕主義)가 아니고, 이름뿐인 허직(虛職)에는 나아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중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선생은 허실의 개념도 사회계층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고 보았다. 즉 일반사람들은 물질과 권세로 실리를 삼는다면, 선비는 정신과 의리로 실리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기(禮記)》 유행편(儒行篇)의 정신을 가장 잘 지키는 말이라 하겠다.

사실 조선조 선비들은 기묘, 을사



남명문집 목판

사회 후 풀이 죽어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으면 아예 세상을 외면하는 은둔자로 홀로 착하게 사는 사람(獨善其身)이 되거나, 아니면 나라와 민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불의를 당해도 수수방관하는 나약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참에 선생이 나타나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선비도 벼슬아치 못지않은 중대한 직분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선비들이 본래의 사명과 직분을 스스로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선생의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현실정치를 비판하고 역사문화를 추동하는 주체로서의 '선비정신'을 일깨워 준 데 있다 하겠다. 관직에 참여한 지식인을 내려다보고 속되고 부패한 선비를 질타하면서 우뚝한 기상으로 지식인 사회의 기풍을 되살려 놓았다는 데 선생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다.

4. 지식인 사회와 나라에 끼친 영향 및 공적

남명 선생이 당세 또는 후세에 끼친 영향과 기여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생은 기묘, 을사 양대 사화(士禍)로 인해 무너진 사기(士氣)를 진작시켜 선비의 기상을 재정립하였다. 둘째 선생은 끝까지 벼슬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정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정치와 관리의 타락과 횡포를 비판하며, 국가와 민생을 위해 건실한 정책을 건의함으로써 종래 재야선비들이 취했던 염세적·회피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직분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벼슬아치보다 선비가 더 존중’ 되는 풍조를 일으켰다. 셋째 천하의 영재들을 모아 ‘경의(敬義)’의 학문을 가르쳐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을 당했을 때 무명의 선비들이 의연히 일어나 국난을 극복하는데 실효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영향과 기여는 서로 연관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다시 한 마디로 줄인다면 ‘조선조 선비정신의 확립’이라 하겠다.

1) 처사상(處士像)의 확립

여기서 처사(處士)라 함은 벼슬하지 않고 재야에 있는 선비의 통칭이다. 흔히 유교에서는 《논어(論語)》 자장편(子張篇)에서는 ‘관직에 있으면서 여력이 있거든 학문을 연구해야 되고(仕而優則學), 학문생활에서 여력이



남명 선생 상

있으면 벼슬을 해야된다(學而優則仕)”는 자하(子夏)의 말을 내세워 학문과 관직을 불가분의 관계로 여기고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당연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성현의 정치가 없어지고 권력자에 의해 정치가 농단되면서부터 유학자들은 오히려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인륜도의를 지키고 밝히고 전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조선조에 있어서도 유학자가 재야의 비판세력으로 자리를 잡아 벼슬하지 않고 도를 닦고 지키고 전하는 것을 관직 취임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남명선생에 의해 확립되었던 것이다. 선생이 처사의 본보기로 많은 선비들의 추앙을 받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선생은 일생 동안 처사라는 명분을 위해 노력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정치를 비판했으며, 그러한 처사의 이름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후생을 가르쳤다. 선생은 임종에서까지도 자기를 처사로 불리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는 스스로 처사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행동함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음을 자부한 것이며, 뒷날 이율곡(李栗谷)도 “근래에 이른바 처사로서 끝까지 그 지절을 온전히 하고 하늘 높이 우뚝 솟은 기상을 세운 분은 선생뿐이다”라고 말하였고, 정구(鄭述)는 “증자(曾子)가 말한 바, ‘어린 국왕을 모시는 중책을 짊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대국의 국법을 힘써 준행(遵行)시키는 중책을 지고 있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생각도 못했던 사유로 생사존망의 엄청난 수난을 당하더라도, 끝끝내 고결한 품성을 고수할만 한’ 분은 선생뿐이니 어찌 동방에서 그만한 호걸이 또 나오겠는가?” 하였으며, 송시열(宋時烈)은 “사람마다 공의(公義)를 귀하게, 사리(私利)를 천하게 여길 줄 알고, 현실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을 숭상하면서 관권의 탐욕스러움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게 한 것은 선생님의 공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벼슬에 나아간 선비보다, 속세에 있으면서 도학을 닦고 그것으로 국정을 비판한 처사의 공헌이 더 원대함을 알겠다.

하여간 선생은 그렇게도 선비들이 탐내던 벼슬을 받지 아니하여 이른바 “선비는 천자의 신하가 되지 아니하고, 제후의 벗이 되지 아니한다.”는 고고하고 독특한 선비의 진면목을 보여 준 깨끗한 인물이었다. 그러면서도 김우옹(金宇顛)이 말한 것처럼 선생은 천성에 의기(義氣)가 가득해서 일찍이 남에게 굽힐 줄을 모르는 분이지만, 국정의 잘못과 민생의 어려움을 걱정함에 미쳐서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때가 없었다. 선생은 비굴하게 쓰임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를 굴하여 세속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당당한 자세로 세상을 굽어 본 적극적인 개혁주의자였다. 종전의 숨어 지내기 일변도의 선비문화로 부터 심오한 학문을 쌓고, 고매한 인격을 기르고, 관대한 경륜을 길러 적극적으로 국가와 민생을 위해 배운 바를 기여하는 선비풍을 일깨우는 분이 바로 선생이다. 선생을 조선조 선비상의 전형이라 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2) 선비존중의 가치관 조성

조선왕조는 유교의 이념으로 통치할 것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모두 유학을 몸에 익힌 선비들이었다. 그러나 ‘선비’는 그 직능상 벼슬에 나아가 실제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학자’와 초야에 있으면서 학행을 닦고 현실정치를 비판하는 ‘재야학자’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현실을 요리하는 힘을 쥐고 있는 관료학자가, 이상을 추구하고 천리를 내세우는 재야학자보다 늘 우위에 놓여 있었다. 특히 조선왕조 건국 이래 무오, 갑자, 기묘, 을사의 4대 사화(士禍)를 겪으면서 재야학자는 위축되어 거의 명맥을 잃게 되었으며,



덕천서원 입구

그 와중에서도 어렵게 관직을 맡으면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고, 속세에 묻히면 일신의 안전을 위해 현실을 외면하게 되므로 선비 사회가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사이비도덕군자(似而非道學君子)가 나와 벼슬과 사리(私利)를 탐하여 정치는 소인 간신배들에 의해 독점되었다. 이렇게 사이비 유학자와 소인배들에 의해 관직이 독점되자 재야의 선비는 상대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비들이 벼슬에 나가는 것을 갈구하기에 이르자, 이를 이용한 집권자는 기용된 재야학자들의 지위를 과거출신보다 낮게 하여 벼슬아치는 높여보고 선비는 낮춰보는 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선생이 처한 시대는 위와 같이 ‘벼슬은 높고 학자는 낮은’ 인식이 팽배하여 무너진 지식인 사회의 풍조는 마침내 말단 한직이라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재야학자의 존재는 보잘 것 없었고 제대로 국정을 비판하는 언론도 없는 시대였다. 이에 선생은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튼튼한 기둥처럼 혼탁한 흐름에 온몸으로 저항한 채 탁한 물을 보내고 맑은 물을 끌어드리는 자세

를 견지했다. 선생이 벼슬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나라에서 내린 벼슬이 선생이 경륜을 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선비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벼슬만이 제일이지 아니라, 바로 처사의 지조와 절개로 세상과 민중을 개량하는 데 더 큰 사명과 보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뚜렷한 목표와 가치의식 없던 선비들에게 그들 자신을 되찾아서 자신의 경지를 열고, 그것으로 벼슬한 선비와는 다른 올바른 선비상과 직분을 일깨워 준 것이다.

이렇게 재야의 선비들이 자신의 위치와 표상을 되찾고, 정신과 지조로 무장하여 하나의 올바른 주장을 하는 세력으로 커지자 조정에서는 재야의 선비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이제까지의 사화(士禍)에서 희생된 사람과 그의 후손을 복권시키고 지식인들을 적극 포용하고 나왔다. 초야에 있다가 기용된 선비가 장령(掌令), 지평(持平) 등 탄핵기관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종이품(從二品)에서 그치는 그간의 승진 한계를 무너뜨려 정승에까지 오를 수 있게 한 것도 선생이 선비들의 기풍을 가다듬은 뒤에 생긴 일이다. 후일 명신대로(名臣大老)의 추앙



남명선생 신도비

을 받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바로 한때 은둔했던 학자들임을 알 때 선생의 관직 사양은 여러모로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송시열과 허목은 다 같이 선생의 신도비문(神道碑文)를 지어 선생을 추앙했다. 우암은 신도비문에서 “맹자는 ‘성인은 백세의 스승이니, 백이(伯夷)와 유하혜(柳下惠)가 그런 분이다.’라고 하였고, 주부자(朱夫子)는 이 말을 인용하여 동계(東溪) 고공(高公)을 일컬었다. 만일 부자가 다시 일어난다면, 지금 선생에게도 이 말을 쓰지 않았겠는가? 뒷날 반드시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선생은 후대까지 추앙을 받으며, 선생으로 초야의 선비들이 과거출신보다 높이 평가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비들은 기질을 숭상하고 벼슬을 가볍게 여기니, 선생으로 ‘선비가 벼슬아치보다 존중받는(士尊官卑)’ 풍조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선생의 올곧고 우뚝한 선비의 기상이 재야학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었다.

3) 영재교육과 국난 극복

선생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는 선생의 남다른 교육철학도 중요한 부분이다. 선생의 교육철학은 개성교육(個性教育)으로 개인의 자질에 따라 가르치면서 넓게 지식을 섭취하되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을 중히 여겼고, 지식은 다시 능력과 정신으로 승화해서 자신의 인격 도야(陶冶)는 물론 세상과 인류에 대한 사명감을 투철히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그것은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선생이 제자의 개성에 따라 교육시킨 예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한다. 정탁(鄭琢)은 재주가 뛰어나고 성격이 활달하여 웬만

한 사람은 그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런 그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 선생은 소 한 마리를 내주며 이 소를 타고 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정탁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고 선생께 그 까닭을 여쭙었다. 그러자 선생은 “공(公)은 너무 말을 잘하고, 타고난 기백이 날렵하다. 그것은 좋은 일이긴 하나 공은 지나치다. 지나친 것은 더디고 굹뚱 것만 못하다” 하시며, 성급한 그의 성격을 염려해서 소처럼 신중하고 인내심을 기르라는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학자로서의 자질이 뛰어난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顛)에게는 굳건한 기상을 강조하며 차고 다니던 성



성성자

성자(惺惺子)를 물

려주었고, 고제(高弟)인 정인홍에게는 자신이 차고 다니던 칼을 물려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타고난 능력과 자질에 따라 가르친 제자들이 하나 같이 모두 독자적으로 한 유파(流派)를 이루었으면서, 국난을 당하여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우국애민의 사명을 통감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국토를 사수하여 국가와 민중을 구출했다.

선생은 의(義)를 중시했다. 그러나 그 정의로움은 ‘경(敬)’이라고 하는 ‘정신집중수련’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쪽 같이 곧고 칼날같이 날카롭고 단칼로 자르듯 명쾌하면서도 끝내는 중용의 덕이 있다. ‘경의(敬義)’ 두 글자를 칼에 새긴 것만 보더라도 그 늠름하고 엄숙함을 짐작할 만하다. 경(敬)에 근본을 둔 정신



복원 경의검

수양과 의(義)에 바탕을 둔 투철한 실천 정신은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그 정신을 받은 제자들은 그것을 임진란의 국란극복에 발휘하였으니 선생이야말로

일생을 값있게 살아갔고, 특히 후생을 교육한 보람을 찾은 성공한 교육자라 하겠다. 사관(史官)이 평하기를 “영남에 선비가 많이 나고, 풍속이 돈독한 까닭은 퇴계와 남명이 모두 영남에 나서 도학을 힘썼기 때문이다”하고, 또 “좌도(左道; 경북)에는 이황(李滉)이 있어 학문을 숭상하고, 우도(右道; 경남)에는 조식(曹植)이 있어 절의(節義)를 숭상하여, 영남의 풍속은 자못 눈여겨 볼만(可觀)하다” 하였으며, 이익(李滲)은 “대체로 우도(경남)사람들은 ‘선량하면서도 정의로운데’ 이는 남명의 기풍을 본받아서이다” 하였으니, 이는 조선유학에 있어서 선생의 독특한 기질이 정의를 중시하여 행동하는 선비를 길러낸 데 있다는 것을 말해 줌이라 하겠다.

남명은 평소 제자들에게 병법과 국방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무렵 조선사회는 오랫동안 계속된 화평한 국내외적 상황에 안일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조선 초부터 이어져온 문치주의와 문관우위의 전통 속에서 무비(武備)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잦아들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경상도는 다른 지역보다 문(文)을 중시하고 무(武)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강한 지역이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 6월, 선조는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주지인 왜관(倭館)의 움직임이나 그곳을 통해 흘러나오는 대마도나 일본의 소식을 접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고 정확했다. 더욱이 1555년에 일어난 을묘왜변(乙卯倭變)을 비롯하여, 일본과의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다. 선생은 이처럼 심상치 않았던 당시 일본인들의 동향을 직시하고 언제 닥칠지 모를 전란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고, 조정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그 후 과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곽재우(郭再祐), 정인홍(鄭仁弘), 김면(金沔) 등 3대 의병장과 조종도(趙宗道), 이대기(李大期), 전치원(全致遠), 이노(李魯)를 비롯한 50여 명의 의병장이 선생의 문하에서 배출되었다. 경상우도에서 시작된 남명 문인들의 의병활동은 임진왜란 초반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반격과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다. 남명 문인의 의병활동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의 창의가 잇따라 관군의 패주와 조정의 몽진(蒙塵)으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여 반격의 계기를 만들었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임진왜란을 종식케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남명문인을 비롯한 각지에서 잇따른 의병활동으로 일본군은 전후방이 없는 전투를 해야만 하여 전력이 약화되고 사기가 꺾여 결국 패퇴하게 되었으니, 남명 문인의 의병활동이 7년간 지속된 임진왜란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의병들은 그저 단순히 의기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병법에 능숙하여 정규군 이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전략을 세워 왜적을 무찔렀다. 흔히 의병은 의기로만 싸워 헛된 희생을 하는 일이 많았지만 선생의 문하생이 이끄는 의병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전과를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의병장들이 문사(文士)이면서 무예와 병법을 배워 알았기 때문이었다.

곧, 선생의 문무병중(文武並重) 교육의 덕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의 문하생들은 기백과 절개를 숭상하여 과단성이 있었기 때문에, 학계, 정계, 의병 등에서 폭 넓게 활약하여 임진왜란을 전후한 선조(宣祖), 광해(光海), 인조(仁祖) 시대는 거의 남명 문인들에 의해 이끌어졌으니, 속세의 한 처사의 교육 역량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선생이 비록 많은 저술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그 교육적 공덕은 몇 만 권의 책보다도 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하겠다.

그러기에 조선교육사를 쓴 이만규(李萬珪)는 우리나라 교육사상 성공한 교육자로 남명선생을 으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정부는 선생을 한국 의병의 아버지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사상과 정신은 일인(日人)들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 남명사상의 발양(發揚)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

5. 남명의 상소문(上疏文)

1) 단성소(丹城疏)

남명은 단성현감(丹城縣監)의 사직상소와 함께 당시의 정치제도나 군신관계로 보아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극언(極言)을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올렸다. 그리하여 임금인 명종(明宗)과 대비(大妃)를 진노하게 하고, 조정의 중신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온 지식인 사회까지 겁에 질려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조선 5백년 역사



단성소

상 전무 후무한 「단성소(丹城疏)」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전하(殿下)의 국정이 그릇된 지 오래고 나라의 기틀은 이미 무너졌고,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났으며, 백성들의 마음 또한 이미 전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비유하건데, 큰 나무가 백 년 동안이나 그 속을 벌레한테 파 먹혀 진이 빠지고, 말라 죽었는데도 그저 바라보기만 하여 폭풍우가 닥치면 견디어 내지 못할 위험한 상태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실정에 있는 지가 오랍니다.

말단 관리들은 아래서 히히 거리며 주색이나 즐기고, 대관들은

「단성소(丹城疏)」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전하(殿下)의 국정이 그릇된 지 오래고 나라의 기틀은 이미 무너졌고,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났으며,

위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오직 뇌물을 긁어모으는 데 혈안입니다. ...
 뿐만 아니오라 궁궐 안의 신하들은 과당을 세워 궁중의 왕권을 농락하고 궁궐 밖의 신하들은 향리(鄉里)에서 백성들을 착취하여 이리때처럼 날뛰면서, 가족이 다 닳아 없어지면 털이 붙어 있을 곳이 없는 이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신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탄식만 나올 뿐, 낮이면 하늘만 쳐다 보기 여러 차례였고, 밤이면 눈물과 한숨을 누를 길 없어 잠 못 이룬지가 오래입니다.

자전(慈殿; 文定王后)은 생각이 깊으시나 깊은 궁궐(宮闕) 안의 한 과부(寡婦)에 지나지 않고, 전하(殿下)는 선왕(先王)의 대를 잇는 외로운 아드님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 많은 천재와 천 갈래 만 갈래로 흩어진 민심을 무엇으로 막고,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를 당해서 비록 재주가周公(周公)과 소공(召公)을 겸하여 삼공(三公)의 위치에 있다 해도 손을 쓰기 어려운 형편이운데, 하물며 하찮은 신하인 저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자야 더 말해 무엇 하리까? 위로는 나라의 위태로움을 조금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며, 아래로는 터럭만큼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니, 전하의 신하되기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헛된 이름을 팔아 전하의 벼슬을 도둑질해서 그 녹만 먹고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그런 신하가 되는 것을 신은 추호도 원치 않습니다.

근자에 변방에 일이 있어 여러 대신들이 밥도 제때에 먹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신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20년



남명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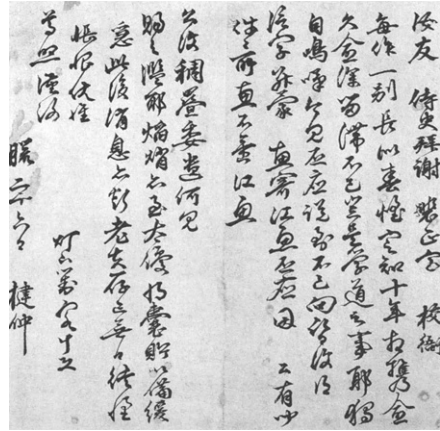
전부터 이 일이 생겼던 것을 전하의 영명(靈明)하심에 힘입어 이제야 발각된 것일 뿐 하루 아침에 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소 조정에서는 매관매직을 하고, 재물을 수탈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므로 민심이 흩어져 결국 쓸만한 장수도 없게 되고 성안에 병사 한 사람 남아 있지 않기에 이르렀으니 적이 막힘없이 쳐들어 온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 그러나 이 같은 것은 하찮은 피부병에 지나지 않고, 마음과 배 속의 병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 국사를 정돈하는 비결은 구구한 법령에 있지 않고, 오직 전하께서 한번 크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 하오나 전하께서 스스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학문을 좋아하십니까? 풍류와 여색을 좋아하십니까? 궁마(弓馬)를 좋아하십니까? 군자를 좋아하십니까? 소인을 좋아하십니까? 그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나에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진실로 전하께서 홀연히 깨달으시어 분연히 학문에 진력하사 윤리 도덕을 밝히고 백성을 깨어나게 하는 이치를 얻으신다면 거기에 일만 가지 선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백 가지 대응책이 연이어 나올 것이니 그것으로 조치를 취하신다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백성을 평화롭게, 위기를 평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선조(宣祖)에게 올린 마지막 건의

선조(宣祖) 초기 지식인 사회를 회유하려는 정책은 사실상 남명의 거취 여하에 따라 성공과 실패, 그리고 빠르고 늦음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조정으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명에게 벼슬을 주어야 한다고 여겨 다음 해 5월에 거듭 소명(召命)을 내렸다. 그러나 남명은 역시 사양했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남명을 비난하는 소리까지 일어났으니, 이른바 을사사화(乙巳土禍)를 전후해서의 관직

거부는 명분이 서지만 윤원형(尹元衡)이 실각하고 명종(明宗) 말기 선비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써서 정신 차려 정치를 하려는 이 마당에 소명에 응하지 않음은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명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나이가 70인 늙은이였다. 70이면 벼슬에 나아갔던 사람도



남명선생 서간문

벼슬에서 물러날 때인데 70에 비로소 벼슬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정치란 이미 여러 왕조를 내려오면서 짜여있는 인맥, 학맥, 정치이념 등에 얽매인 조직이 있는 것이다. 그런 관국에 명망(名望)만 업고서 조정에 나아가면 거의 모두 이용만 당하기 마련이었다. 남명이 상소에서 허명(虛名), 미명(美名)을 일삼지 말라고 한 것은 어쩌면 그런 정치 세계의 내막을 소상히 알아 차렸기 때문에 한 말인 것이며, 이를 꿰뚫고 있었던 남명이기에 끝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지식인 사회의 영수(領首)로 선비들에게 빛을 줄 수 있었던 것이었다. 명종 말, 선조 초의 관직 사절을 들어 조야(朝野)의 일부에서는 남명을 꼬집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도도한 선비(高亢一節之士)’라고 몰아 붙였는데, 이는 마치 구하려다 못 구하니까 도리어 그 물건의 힘을 잡는 것과 같은 짓이었다. 사실 남명은 이 때문에 조정이 쥐고 있는 영욕권(榮辱權)의 부여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남명이 끝내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지 못한 것은 조정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미움을 산 때문이라 하겠다.

5월에 내린 소명에 답하여 올린 사양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남에게서 구하는 데 있지 않고, 임금 자신이 선을 밝히고 몸을 정성스럽게 하는 데 그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선을 밝힌다는 것은 이치를 궁구함을 말함이고, 몸을 정성스럽게 한다 함은 몸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과 감정 속에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으니 인의예지가 곧 그 본체요, 만선(萬善)이 모두 그 본체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은 이치가 모이는 주체요,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 그 이치를 궁구함은 장차 실제에 쓰려 함이고, 몸을 닦는 것은 장차 도리를 행하고자 함입니다. 그러한 이치를 궁구하는 바탕이 곧 독서를 하여 의리를 밝혀서 현실에 적용할 때의 타당 여부를 구하는 것이요, 몸을 닦는 요령은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요령을 마음 속에 간직하여 홀로 있으면서도 스스로 성찰함은 천덕(天德)이요, 이것을 밖으로 성찰해서 힘써 행하는 것이 왕도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공부는 반드시 경(敬)을 위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른바 ‘경’이란 늘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가지런하고 조용하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늘 밝게 깨어있게 하여 그 일념이 주인이 되어 만사를 제어함을 말합니다. 이른바 내심을 바르게 해서 행동 표현을 방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른바 경으로써 몸을 닦는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까닭에 ‘경’을 위주로 하지 않고는 마음을 보존할 수가 없고 마음이 보존되지 않으면 천하의 이치를 궁리해 낼 수가 없으며 이치를 밝혀내지 않고서는 사물의 변화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

전하께서 과연 기꺼이 ‘경’으로써 몸을 닦아, 천덕에 달하고 왕도를 실행하여 반드시 지선(至善)의 경지에 이른다면,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정성스러워지면서 만물과 나 자신이 함께 어울리게 될

것이며 이를 정치와 교화에 시행한다면 마치 바람 부는 대로 구름이 가듯 백성들이 더욱 열성스럽게 따라와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편을 말한다면 우선 임금 자신의 심성이 안정돼 있지 않아 정사는 사사로이 처리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 법령을 공포하여도 백성들은 이에 거부반응을 나타내어 나라의 기강이 서지 않은 지가 여러 대(代)입니다. 하온지라 비상한 위엄을 떨치지 않고서는 이미 흩어져서 뒤죽박죽이 된 세태를 끌어 모을 수가 없고, 큰 장맛비로 축여주지 않고서는 칠 년 가뭄에 말라 있는 풀잎을 운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뛰어난 영재를 보필로 얻어 상하가 함께 정성을 다해 협조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임을 자각한 연후에야 차츰 무너지는 것을 받들어 세우고 말라 시들어지는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재를 얻는 것은 임금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몸을 닦지 않으면, 사람을 저울질하고 보는 능력이 갖추어 있지 않아 선악을 분간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한 눈으로 사람을 취하고



여재실

버리면 모두 실패할 것이며, 또한 임금도 직접 인사를 관장하지 않고 남에게 맡긴다면 누가 임금과 더불어 치도를 이룩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임금이 몸을 닦는다는 것은 그가 바로 정치를 하는 근본이며, 어진 이를 얻어 쓴다는 것은 그 정치를 성공시키는 근본이며, 수신은 또한 사람을 취하는 근본이 되나니, 사람을 잘못 쓰면 군자가 초야에 있게 되고, 소인이 조정을 독점하여 국사를 멋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권신이 제멋대로 결정한 일이 혹 있었고, 외척이 발호한 일이 혹 있었고 내시(內侍)가 정령(政令)을 가로 채 일이 혹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서리(胥吏)들이 나랏일을 농락하는 것은 일찍이 듣지 못했습니다. 군민의 온갖 정사와 국가의 기밀이 모두 그들 손에 의해 처리되고 지방의 납세와 공물이 먼저 그들의 배를 채운 뒤에야 비로소 전달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각 고을의 물자라고 문서화 된 것을 자기 자손들에게 소유권을 전하였으므로 공납하는 약한 백성들은 온 가문이 모든 재산을 모두 팔아 바쳐도 모자라서 끝내는 빚을 지고 도망가는 자가 줄을 잇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찌 전하께서는 자신이 누리시는 부가 바로 당신의 노복들이 자행하는 방납물(防納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는 한 나라가 망할 때에도 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혈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 작당하여 좀도적질을 하면 포졸들에게 급히 잡아들일 것을 명하면서, 오히려 벼슬아치들이 도적질을 하여 국맥(國脈)을 쇠진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관도 이를 감히 말하지 못하고 사직당국도 이를 추궁하지 않으며, 혹 일개 관원이 좀 규찰하려 들라치면 이내 죄를 씌워 파직시키는 권한까지 그들이 쥐고 있습니다. 어찌 믿는 세력이 없고서야 이토록 방자하고 겁 없이 날뿔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교활한 토끼처럼 각

기 세 개의 은신처를 가지고 있고, 냇물의 조개처럼 단단한 껍질을 입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하늘이 굽어보듯 크게 노하시어 왕권의 위엄을 떨치시고 친히 재상과 집사들을 조사하여 그 까닭을 규명하시고 마치 순(舜)임금이 네 악당을 물리치고, 공자(孔子)가 소정묘(少正卯)를 죽인 것처럼 직접 처단하신다면 이는 임금이 악을 극도로 미워하심을 알고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 할 것입니다.

만일 언관이 진언한 뒤에야 구차스럽게 따른다면 선악의 소재와 시비의 분별을 알 수 없게 될 것이니 이는 임금의 길을 잃는 것입니다. 임금의 심덕이 밝아 있다면 이는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이 나에게 있음과 같아서 비추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왕의 심덕과 위엄이 초목에까지도 미칠 것이니 하물며 백성에게 미치지 않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정에 들어가 있는 자 가운데 세상을 밝힐 만큼 일세에 뛰어난 보필자와 자기 직무에 충실한 어진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명철하지도 그렇다고 우매하지도 않으면서도 걱정스러운 세상을 그저 즐겁게 태평히 살아가고 있으니 이를 어찌 사람의 하는 일이 굳세지 못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명이라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요?

이 신하는 깊은 산에 살면서 아래로 땅을 굽어보고 위로 하늘을 우러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탄식을 억누르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가 여러 번 이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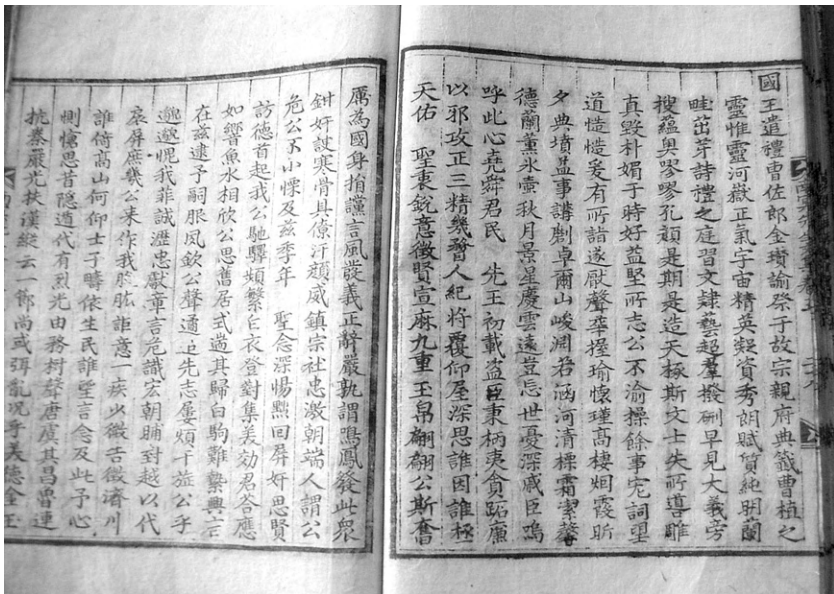
이 글을 받아 읽은 선조(宣祖)는 비답(批答)을 내리기를 “근자에 올린 글을 나는 좌우에 놓고 늘 살펴보고 있도다. 이토록 임금의 잘못을 지적해줌을 볼 때마다 그대 재덕의 높음을 알겠도다. 내 비록 불민하지만 의당 유념할 것이니 그대는 그리 알라” 하였다.

6. 국왕이 보낸 제문 및 선비 우대정책

남명이 세상을 뜬 후 지식인들과 문생(門生)들은 극진한 애곡(哀哭)을 하였으며, 국왕은 사제문(賜祭文)에서 ‘인자한 큰 어른(大老)’이라고 하였다. 제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사제문(賜祭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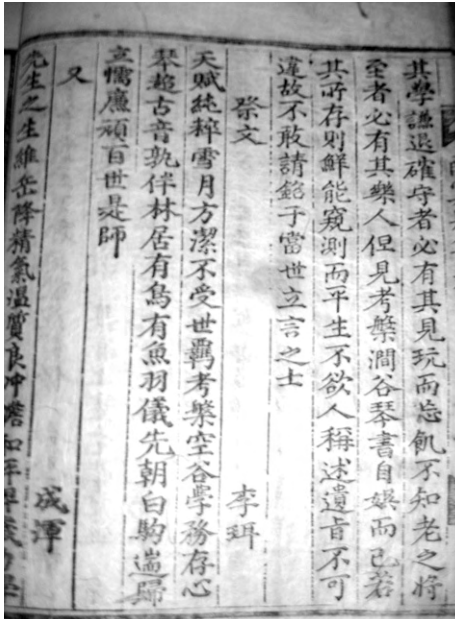
“하늘이 이토록 문명된 학문과 제도를 버리니, 선비가 나아갈 바를 잃었다. 사람들은 진성(眞性)을 아로새기고, 순정(淳情)을 무너뜨려 세속에 아부했지만 공(公)은 뜻을 더욱 굳게 가져 끝내 변절하지 않았다. 문장(文章)은 여사(餘事)로 삼고 오직 대도(大道)를 향해 매진하니 그 도달한 경지가 홀로 높았다. … 자기의 생각을 발표할 때도 의기가 순정하고 말과 글에 위엄이 있었다. 누가 말했던



사제문

가, 이는 봉황의 소리라고? 모든 사람의 입에서 재갈을 벗기니, 간신들의 뼈를 서늘하게 하였고, 못 벼슬아치들의 얼굴에 땀이 흐르게 하였다. 위엄은 종묘와 사직에 떨쳤고, 충성스런 분노는 조정을 격동시켰다. 사람들은 조(曹)공에게 위태롭다 걱정했지만, 공은 조금도 겁내지 않았다. … 간당이 물러가고 현덕을 찾음에 공을 으뜸으로 부르니 백의로 마주하여 절실하고 긴요한 좋은 방책을 바치어 묻고 대답함이 산울림 같고 고기와 물이 서로 의지하고 기뻐하듯 하였다. … 내 대통을 이은 뒤 일찍이 성망을 흠모하여 선왕의 뜻을 따라 초빙하였건만, 공은 더욱 멀기만 하니 내 정성이 부족했는지 부끄러워했다. 충성어린 소장(疏章)은 남이 감히 못할 말을 하였고 그로써 과인은 공의 학문이 깊고 넓음을 알았다. 이를 병풍대신 둘러치고 조석으로 읽어보며, 공이 오기만 하면 팔과 다리로 삼으려 했는데, 어찌 생각이나 했으리. 한 번 병들자 처사의 별이 빛을 잃을 줄이야. … 누구를 의지해서 넷물을 건너며 어디에서 높은 덕을 보고 배울까. 소자(小子; 국왕이 자신을 제자로 겸양한 호칭)는 어디에 의탁하며, 민생들은 누구에 기대할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슬픈 마음 가눌 길이 없다. 옛날 은둔한 선비들을 되돌아보니 그 시대마다 찬연히 빛났다. 허유(許由)와 무광(務光)이 교훈을 세워서 요순(堯舜)시대가 순박했고, 노중련(魯仲連)은 진(秦)나라의 폭정에 항거하였고, 엄자릉(嚴子陵)은 한(漢)나라의 기강을 세웠다. 한 사람의 절개와 지조로도 이같이 일세의 퇴폐를 막았거늘 하물며 금옥같이 곧은 미덕으로서야. 비록 몸은 두어 이랑 논밭에 서식했지만 세상의 경중을 한 몸으로 좌우하여 그 빛은 일대를 밝히고, 그 공은 백세에 남을 것이니 비록 사후에 영예 직을 수여하지만 어찌 예를 다했다 하겠는가? 지난 날 선왕(先王)께서 세상을 같이 하지 못하심을 한탄하시더니, 내 이제 그 말씀 되새겨 봄에 마음이 부끄

럽다. 음성과 용모를 영원히 못 보게 되었으니 이 한스러움 어찌 헤아리리오. 남쪽 하늘 바라보니 산 높고 물만 길고나. 하늘이 은둔한 선비를 아끼지 않아 나라의 대로(大老)가 잇달아 세상을 뜨니, 온 나라가 텅 비어 본받을 데 없음을 어찌하랴. ...”



제문

이것은 선조(宣祖)가 부음을 듣고, 남명의 사후에 통정대부 사간원 대사간(通政大夫 司諫院 大司諫) 직책을 부여하고, 부의 물품과 의전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낸 제문이다. 심의겸(沈義謙)이 집전하고, 김찬(金瓚)이 예관(禮官)이었다. 산골 처사에게 내린 국왕의 제문으로서는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겠다. 국왕 스스로가 제자의 예를 표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남명으로서의 사후 최고 영예를 입었고, 또한 지식인 사회의 긍지가 되살아난 것이다.

2) 선비 우대정책

초야에 문힌 처사를 ‘나라에서 존경받는 어진 노인(國之大老)’으로 추앙한 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로부터 조정이 선비들에게 선비우대의 예의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속세를 등진 선비를 나라에서 기용함에 있어서도 전례를 깨고 대간(臺諫)

은 물론 공보(公輔)에까지, 즉 과거출신들과 구별 없이 우대하여 보임(任補)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으니, 남명이 지식인 사회를 흥성하게 하고 또 분발하게 한 공로와 영향력은 가히 전무 후무하다 하겠다.

남명이 세상을 뜬 후, 조정의 대신들 간에는 과거출신 아닌 은둔 학자들을 발탁해 쓰는 데 있어 그의 위계(位階)와 보직을 제한하는 것은 인재를 얻겠다는 본래 의도에 어긋난다는 건의가 일어났고, 이를 왕은 대신들에게 명하여 논의토록 하였다. 남명선생편년(南冥先生編年)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 때 임금을 가까이모시는 신하들 중에는 과거출신이 아니더라도 학행이 있는 사람이면 언론과 탄핵을 맡는 대직(臺職)에 보임할 수 있게 하자는 건의가 있자, 왕은 이를 대신들에게 명하여 논의케 하였는데, 영의정(領議政) 이탁(李鐸)이 말하기를 ‘제왕이 사람을 쓰는 것은 오직 인재를 얻는 데 있는 것이니, 과거 출신인가 아닌가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진실로 힘써 학문을 닦고 실천하는 바 있어 조용히 자신을 지키면서 이름을 감추려 하는 고결한 선비라면 비록 삼공(三公; 삼정승)과 사보(師輔)에 둘 수도 있을 터이니 어찌 대직 뿐이겠습니까? 근래 사람을 씬에 오로지 과거에만 의존하다 보니 정말 재덕을 검비한 선비들이 많이 기용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모(曹某; 남명을 가리킴)는 일시의 속세를 등진 선비라 하여 고작 미관말직이나 수여하니 그 경륜을 펴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자(賢者)가 소명에 응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왕에게 직언하는 어사 직책에 과거출신 아닌 자를 기용하여 옛 선왕들의 전례를 회복하고, 이로써 인재를 등용하는 길을 넓힌다면 어찌 성군(聖君)의 통치가 더욱 빛나지 않겠

습니까?’ 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있는 뒤, 재야학자로 기용된 인물 중에서 국왕과 직접 사리를 논하는 자리를 거쳐 상공(相公)의 자리에 나아간 이가 많아졌으니 정인홍(鄭仁弘), 송시열(宋時烈), 허목(許穆) 등이 그러하며, 오히려 재야 출신들에서 명관(名官)이 많이 나와 이로써 지식인들은 더욱 학행을 중시하게 되고, 마침내 사존관비(士尊官卑)라는 학자들 나름대로의 자존과 긍지, 그리고 환관(宦官)과는 다른 차원과 영역에서 그들의 직분을 다하려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것이니, 이 또한 선생의 후광으로 개척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7. 성운(成運)이 쓴 묘갈문(墓碣文)

조(曹)씨는 옛날 대성(大姓)으로 대대로 인물이 났으니, 고려(高麗) 태조 때 벼슬이 형부원외랑(刑部員外郎)이었던 조서(曹瑞)는 덕궁공주(德宮公主)의 아들이시다. 그 뒤를 이어 더욱 번창하고 현달(顯達)하여 오다가 조선왕조 초기 중랑장(中郎將)을 지낸 조은(曹殷)은 공(公)의 고조이시며, 증조 조안습(曹安習)은 성균생원(成均生員)이요, 조부 조영(曹永)은 벼슬하지 않았고, 부친 조언형(曹彦亨)이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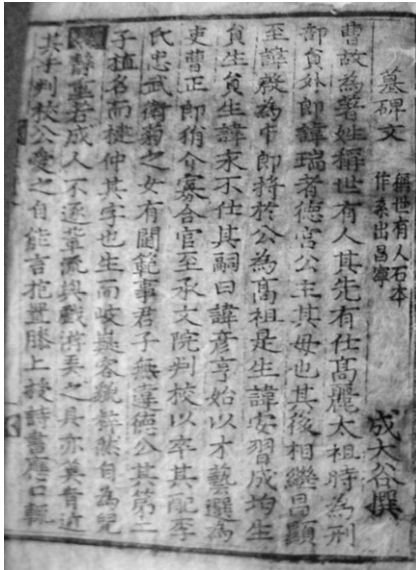
으로 벼슬에 나아가 이조정랑(吏曹正郎),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를 지내니 성품이 깨끗하고 깔끔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어머니 이씨(李氏)는 충순위



선생 묘소

이국(李菊)의 따님으로 부녀자로서의 생활 규범이 엄하여 군자를 섬기는 데 실덕함이 없었다.

조공(曹公)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 이름은 식(植)이요, 자(字)는 건중(楗仲)이라 하였다. 나면서부터 재질이 뛰어나고 용모가 준수하였다. 아이 때부터 정중하기가 어른 같아서 같은 또래와는 어울리지 않았고 장난감을 손에 대지 않았다. 판교공(判校公)이 특히 사랑했고 공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무릎 위에 앉히고 시서(詩書)를 가르치니 때때로 따라 외워 잊지 않았다. 8, 9세 때에 병을 앓아



성대곡 묘갈

자리에 누웠는데, 어머니가 얼 굴에 걱정스런 빛을 띠우자, 공(公)은 몸을 가누고 기운을 차려 조금 나온 것 같이 하며 아뢰기를 “하늘이 사람을 냄 에 어찌 부질없이 냈겠습니까? 더욱이 제가 사나이로 태 어났음은 하늘이 저에게 할 일 을 주려 함이었을 것이니 제가 오늘 갑자기 요절할 것이라는 근심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듣는 사람이 모두 기특하 게 여겼다.

자라남에 널리 통달하지 않은 책이 없었고, 특히 좌전(左傳)과 유종원(柳宗元)을 좋아하여 문장이 깔끔하고 힘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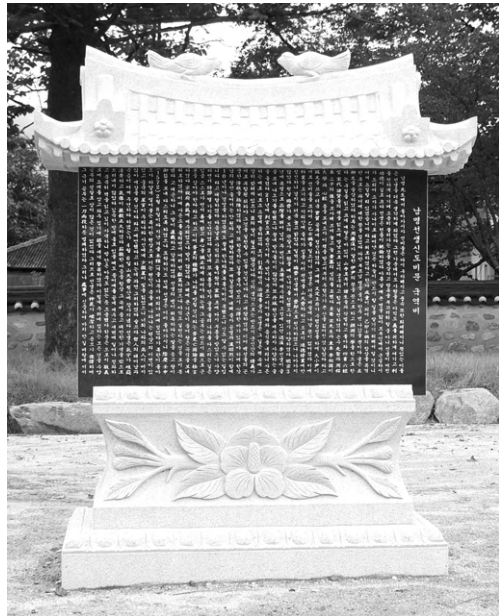
풍물을 읊고 사실을 기록함에 처음엔 생각을 거친 것 같지 않다가 점차 문사가 장엄하고 사리가 정밀하여 가지런하고 절도가 있었다. 나라에서 ‘정치에 관한 계책’을 쓰게 하여 선비를 뽑는 과거를 치르자 남명이 책임자에게 답안을 드리니 그것을 본 책임자가 크게 놀라 세 번씩이나 1, 2등으로 뽑은 일이 있고, 이에 고문을 배우려는 자가 서로 입에서 입으로 칭송하면서 본보기로 삼기까지 하였다.

가정(嘉靖) 5년(1526년) 26세 때 판교공이 세상을 뜬데, 서울로 부터 시신을 모셔와 고향에 장사지내고 어머님을 모셔와 봉양하였다. 공은 어느 날 글을 읽다가 허형(許衡)이 말한 ‘이윤(伊尹)의 뜻을 뜻으로 하고 안연(顔淵)의 학문을 학문으로 한다.’고 한 구절을

보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뜻을 가다듬고 분발하여 육경(六經)과 사서(四書) 및 주돈이, 장재, 정호와 정이 형제, 주희의 학설을 강송하기 시작, 밤낮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도록 연구와 사색에 몰두하였다. 그러면서 스스로 터득하기를, 학문을 함에 있어 ‘정신수양의 태도를 견지’ 하는 것 보다 더 요긴함이 없다하여 정신집중수련에 공을 들였으며, 혹여 자신이 혼미할까 늘 정신을 깨우치고 또 깨우쳤으며 이로써 몸과 마음을 수련하였다. 또 학문을 함에 있어 욕심을 줄이는 것 보다 먼저 할 것이 없다하여 자기억제수련에 진력하여 마음 속의 잡된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고, 자연의 이치를 배우면서, 특히 남에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있을 때도 자신을 경계 조심하고 살피었고, 지식을 이미 통달했으나 더욱 정밀화하고, 실천에 적극적이었으면서도 더욱 힘을 기울였다. 자신의 체험을 반성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본무를 삼아 한발 한발 착실하게 진행해 감으로써 궁극의 경지에 이를 것을 기약했다.

가정 24년(1545년) 45세 때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아버지 산소 좌측 언덕에 장사지냈다.

공은 밝은 지혜와 높은 식견을 갖추었고 선비로서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계기에 대해 밝았으니, 일찍이 세상인심이 변하고 풍속



국역 신도비

이 각박하여 정치가 해이해져 있음을 간파했고, 또 여러 번의 사화(士禍)를 통하여 어진이의 앞길이 험난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앙의 기미가 잠재해 있음을 알고, 이런 시대를 당해서 비록 난세를 만회하고 인심을 교화하려 한다 해도 도가 때를 만나지 못한지라 끝내 배운 바를 펼 수 없음을 짐작하여 과거에 나아가지도, 벼슬을 구하지도 않아, 뜻을 거두어 들어 물러가 산야에 묻히니 스스로 남명이라 호(號)하고, 지은 정자를 산해(山海), 지은 집을 뇌룡(雷龍)이라 이름하고, 최후로 두류산 물굽이 골짜기에 들어가 8, 9칸의 집을 세우고 편액을 산천재라 하고 깊이 잠기어 스스로를 닦으면서 세월을 보냈다. …

용경(隆慶) 원년(1567년) 67세 때 선조 임금이 즉위하면서 불렀으나 사양하고, 이어 또 불렀으나 역시 나아가지 않고 글을 올려 ‘구급(救急)’ 두 글자로 헌신에 대신한다 하였으며 아울러 당시의 폐단 열 가지를 아뢰었다. 다음 해 왕이 또 부르자 역시 글을 올려 이르기 “백성을 다스리는 길은 임금 자신이 선을 밝히고, 몸을 정성스럽게 하는 데는 반드시 ‘경(敬)’을 주체로 삼아야 한다” 하고, 특히 서리들의 폐단을 극진히 고발하였다.

용경(隆慶) 3년(1569년) 69세 때 나라에서는 종친부 전첨(宗親府典籤) 벼슬을 내렸으나 역시 사퇴하였다. 신미년(71세)에 큰 흉년이 들어 임금이 곡식을 내리니 글로써 감사함을 표하고 여러 번 건의한 바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거듭 서둘러 시행할 것을 촉구하니 그 말이 참으로 올바르고 절실하였다. 임신년(72세)에 병으로 늙자 임금은 의약을 보내어 고치려 하였으나 그것이 남명에게 이르기 전, 2월 8일에 운명(殞命)하니 향년(享年) 72세이다. 묘소는 산천재(山天齋) 뒷산을 택하여 4월 6일에 장사지냈다.

조공은 타고난 자질이 영특하고 풍체가 늙름하였다. 몸가짐이 단

정 · 엄숙하고 반듯하며 기질이 강직하고 빈틈이 없었고, 행실에 과단성이 있고, 움직임이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음란함 따위는 눈으로는 보지 않고 귀로는 엿듣지 않았다. 엄숙한 마음을 늘 속으로 간직하여 태만한 얼굴빛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항상 조용한 방안에 은거하듯 좀처럼 담장 밖에 나서지 않아, 비록 지봉을 맞대고 사는 자일지라도 그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

새벽 닭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관대(冠帶)를 정제하고 자리를 바로하고 죽은 듯이 앉아 있으면 어깨와 등이 쪽 곤아 바라보기에 마치 인형을 빚어 놓은 것 같았다. 책상을 정리하고 책을 펴면 마음과 눈이 함께 이르러 정신을 집중할 뿐 입으로 응얼대는 소리를 내지 않아



덕문정

방안이 고요하기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단정한 용모와 위엄 있는 행동거지는 여유 있고 단아하여 스스로 규범이 있었다.

비록 졸지에 창황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상도(常道)를 잃지 아니하여 참으로 사람들을 감동케 할만 했다. 집에 있어서는 장중한 모습으로 못 사람들을 대함에 집 안팎 분위기가 늘 엄숙하면서도 화기애애했고 가까이에서 모시는 수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매만지고 옷깃을 단정히 하지 않고서는 감히 그 앞에 나아가지 못했으며, 비록 부인(夫人)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러했다. 벼슬 취함에 반드시 단정함이 있었으니 그가 벼할 만하다 여기면 비록 포의

(布衣)라도 왕공(王公)처럼 높이어 예경(禮敬)을 다하고, 벗할 만하지 못하다 여기면 벼슬이 아무리 높다 해도 무지렁이 같이 여겨 함께 앉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때문에 사귄 벗은 모두 학행과 문예(文藝)가 있는 당대의 명유(名儒)들 중에서 선택되었다. 사람 보는 눈이 명석하여 아무도 그를 속일 수가 없었으니, 어느 날 장래성 있는 벼슬길에 올라 명성이 매우 높은 신진소년이 있었는데 공은 그를 한번 보자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그의 재주를 믿고 오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니 뒷날 어진 이를 죽이고 유능한 사람을 해치는 일이 반드시 그로 인해 일어날 것이다” 하더니 그 후 과연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자 몰래 흉괴들과 결탁, 법을 농락하고 위세를 부려 지식인들을 잡아 죽였다. 또 선비 중에 문재는 있는데도 과거에 오르지 못하여 음흉하고 남을 시기하며 어진 이를 원수처럼 대하는 자가 있었는데, 공이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그를 보자 물러나와 “내 그 사람의 눈썹 사이를 살펴보니 그 사람됨이 겉으로는 화평한 것 같으나 속에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어, 만일 그로 하여금 지위를 얻고 뜻을 펴게 한다면 착한 사람들이 위태로워 질 것이다” 했다. 벗들은 모두 사람을 꿰뚫어 보는 공의 혜안에 감복하였다.

매양 임금이나 왕비의 제삿날(國忌日)에는 풍류를 듣지 아니하고 고기를 먹지 아니했다. 하루는 두 서넛 이름난 벼슬아치가 공을 초청하여 절간에서 모였는데 술자리를 베푸는지라 공이 넋지시 “모(某) 대왕(大王)의 기일(忌日)이 오늘인데 그대들은 어찌 이를 잊었는가?” 하니 좌중이 놀라 사죄하고 급히 이를 물리치게 하였다. 공은 천성이 효우(孝友)함에 돈독하여 아버이 곁에 있을 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얼굴을 짓고 극진히 봉양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으며, 상복중에 있어서는 슬픔이 극진했고, 상복을 벗지 않고,

조석으로 잠시도 빈소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비록 병에 걸려도 빈소를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제사지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물을 갖추어서 굽고 지짐이 알맞은가? 씻고 닦음이 깨끗한가를 부엌어미에게만 맡기지 않고 반드시 자신이 직접 살피곤 하였다. 조문(弔問)하는 손님이 오면, 반드시 엎드려 곡하며 절할 뿐 같이 앉아 말하지 않았고, 수하 사람들에게 분부하기를 상복을 입은 동안에는 사소한 집안일은 와서 알리지 말라하였다.

남명은 아우 환(桓)과의 우애가 심히 돈독하였다. 형제는 몸통과 팔다리같이 뗄 수 없는 관계인지라 헤어질 수 없다 하여, 한 담장 안에서 동거하며 같은 문을 출입했으며 밥상을 맞대고 이불을 같이 덮어 늘 화기애애하게 지냈다. 가산을 줄여서 형제 중 가난한 사람에게 갈라 주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 들지 않았다.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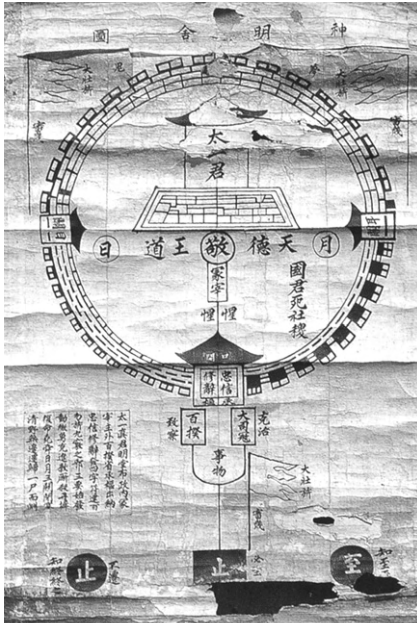
이 곳은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마음 아파하며 달려가 물불에서 구하듯 돌보았다. 공은 세상을 차마 잊지 못하여, 늘 나라를 걱정하고 서민들



기념관 입구

을 불쌍히 여겼다. 매양 맑은 하늘, 밝은 달밤을 맞이하면 홀로 앉아 슬픈 노래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곤 하였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은 공(公)이 왜 그러는지를 알지 못했다.

조공(曹公)은 만년에 가면서 학력이 더욱 나아가고 터득한 경지



신명사도

가 더욱 심오해져서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각각 그 자질에 맞추어 독실하게 지도하였고, 질문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의문 나는 뜻을 자세히 분석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한 뒤에야 그쳤다. 또 학자들을 경계하기를,

“오늘의 학자는 절실한 당면문제는 놓아둔 채 높고 먼 데로만 나가니 그 병폐가 적지 않다. 학문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

며 어른을 받들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만일 이를 힘쓰지 않고 대뜸 인성과 천명의 오묘함만 궁리하고 터득하려 한다면, 이는 인생살이를 기준으로 천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마침내 그 진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옛 성현의 모습을 그려서 걸어놓고 아침마다 모시는 예를 올리면서 마치 살아계신 스승한테서 직접 귀와 눈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 같이 했다. 일찍이 이르기를 “학자는 잠을 많이 자면 안 되나니, 그 사색수양은 밤중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하였고, 항상 책을 읽다가 긴요한 구절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붓을 들어 적어두니 이름 하여 《학기(學記)》라 했다. 손수 「신명사도(神明舍圖)」를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나타내는 글귀인 명문(銘)을 붙였으며 또 천도와 인심, 본성, 감정 그리고 도를 찾아가고 덕에 들어가는 과정을 도표로 그렸는데, 그

러한 부류가 비밀비재하였다.

또 창과 벽 사이로 ‘경의(敬義)’ 두 자를 크게 써 붙여 학자에게 보이고 스스로를 경각시킴이 간절했으니 병이 위독한 때도 오히려 ‘경의’를 들어 설명하고 제자들에게 간곡히 훈계할 정도였다. 그가 죽어감에 부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죽음에도 태연스럽게 조용히 잠자듯 운명하였다. 나라에서는 부조와 곡물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사간원 대사간(司諫院 大司諫)을 추증했고 그 뒤에 다시 영의정을 추증하였다.

슬프다! 공은 배움에 독실하고 실천에 힘써, 도를 닦고 덕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넓게 알고 깊게 깨달은 바가 누구보다도 탁월했기에 옛 어진이의 반열에 추가 배석하여 후학들의 종사(宗師)로 삼을 만했거늘 혹자는 이를 모르고 엉뚱한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 반드시 당대 사람들에게 알아주기를 바랐으리요? 백세 먼 뒷날 아는 이가 나와 알아주길 기다릴 수밖에 ….

운(成運)은 외람되게도 교우의 반열에 끼어 같이 노닐지가 가장 오래여서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의 덕행을 보아왔고 또한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바를 알고 있으니 이는 모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이요, 남의 이야기를 귀로 들은 것이 아니니 진실을 전하는 것이다. 끝으로 감명의 글(銘)을 쓰노라.

“하늘이 주신 어질고 곧은 덕을 온 몸에 함양하여, 스스로 쓰기에 넘쳤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베풀 길은 없어, 그 은택이 세상에 널리 미치지 못했으니, 이것이 시운인가 운명인가? 백성들이 복 없음을 슬퍼하노라.”

남명 선생의 생애와 학문정신

- 남명 선생은 어떤 분인가 -

2006年 7月 15日 印刷

2006年 7月 24日 發行

發行人 : 權 正 浩

發行處 : 社團 蘭冥學研究院
法人

慶南 晉州市 鳳谷洞 14-21番地(2층)

電話 055) 748-9147, 9148

FAX 055) 748-9152

homepage : <http://www.nammyung.org>

E-mail : ionms@nammyung.org

印刷處 : 뜰날기획인쇄 · 출판

전화 055) 752-3271

FAX 055) 752-3261

定價 : 2,000원

※ 낙장 및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남명(南冥) 조지(曹植)은 조선조(朝鮮 朝) 연산군(燕山君) 7년(1501년) 6월 26일 경남 함천군(陝川郡) 삼가면(三嘉面) 토동(兔洞)에서 갓지한성품의 아버지 언형(彦亨) 承文院判校 과 인자한성품의 어머니 인천이씨(李氏 忠順衛 李菊의 딸 左議政 崔潤德의 외손녀) 사이의 3남 5녀 중 2남으로 태어났다. 본가는 삼가면 판현(板峴)에 있었고 토동은 선생의 외가이다. 이윽에 사는 예언가에 의하면 외가인 이씨의 가택은 명망이어서 다편(夕年)에 태어나는 아기는 자라서 현인이 된다고 하였다. 해산 뒷바라지를 하던 외조부는 외손자를 보아서 기뻐하면서도 한편 자기네 운(運)이 사위인 조씨(曹氏) 집안으로 갔다고 아쉬워했다고 한다. 선생의 자(字)는 권중(權仲)이요 남명은 그의 호(號)이다.



남명기념관

南冥學
社 團 法 人

南冥學研究院